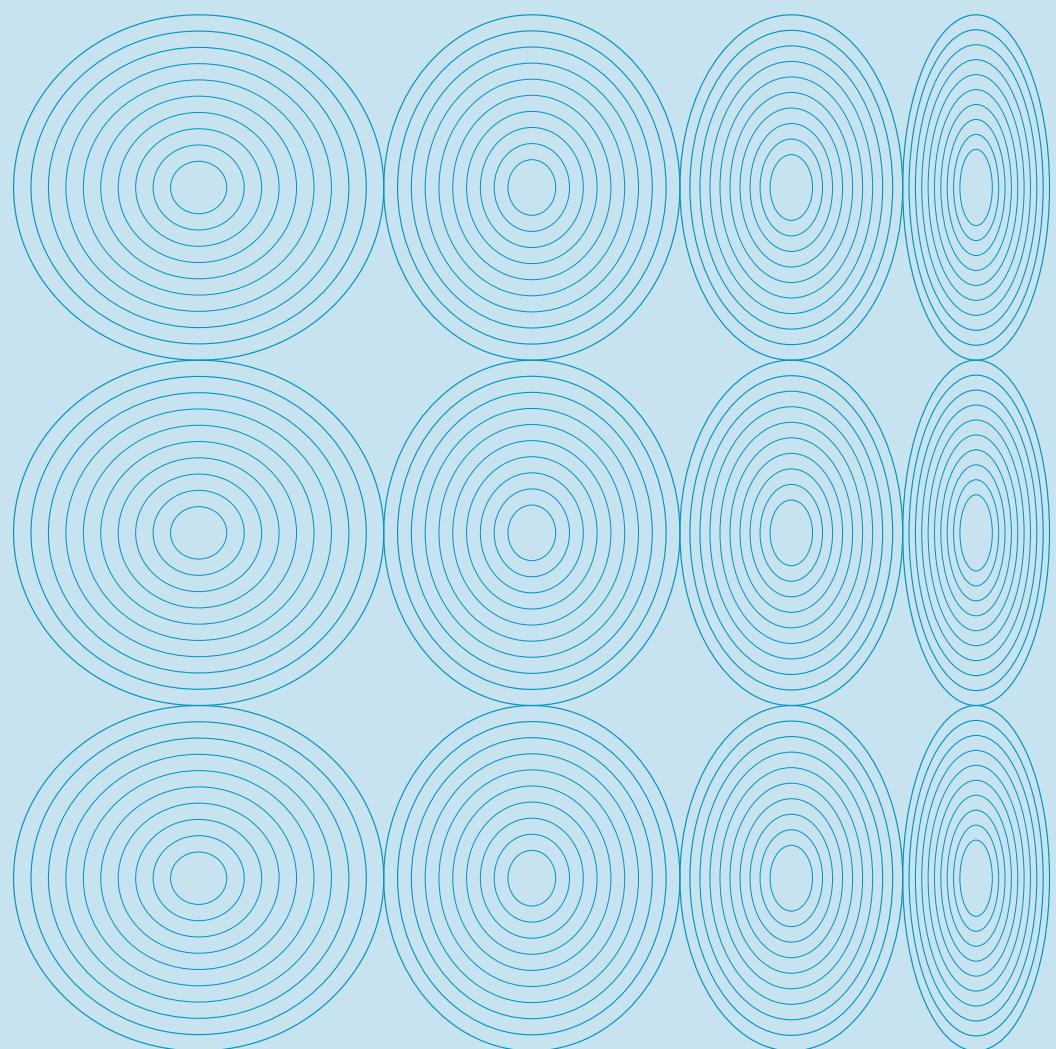


세상을 스마트하게
하는 전화력

SMART



세상을 스마트하게
하는 진화력



트랜크스 을정부
한국수출



CONTENTS

417

2025 05 + 06



세아웹진



〈세아가족〉은 세아인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사보입니다. 〈세아가족〉에 소개할 만한 세아인,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부서, 화목한 세아 가족을 추천해 주세요. 또한 상담이 필요한 고민거리나 공유하고 싶은 채널이 있다면 언제든지 사연을 보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적극적인 참여가 모두 함께 소통하는 〈세아가족〉을 만드는 초석이 됩니다.
문의 세아홀딩스 커뮤니케이션실 황수진 대리 sujin.hwang@seah.co.kr / 02-6970-0094

417

발행일 2025년 6월 20일(통권 417호)

디자인 (주)홍커뮤니케이션즈 www.hongcomm.com

발행인 김수호

사진 Studio KENN

발행처 세아홀딩스

ISSN 2636-1787

주소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45 세아타워 30층

* 외부 필자의 글은 〈세아가족〉의

기획 세아홀딩스 커뮤니케이션팀 02 6970 0094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06

세아

편집광민이 살아남는다

– 앤디 그로브

08

세상

AI 시대의 항해술,

‘디지털 문해력’

12

세아인

기술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스마트팩토리’를 위해

– 세아제강 SMART기술팀

18

뉴스룸 1

다시 뛰는 철강, 그곳의 세아

– 제18회 철강 마라톤대회

24

뉴스룸 2

별빛 아래 울려 퍼진

사랑과 운명의 노래

– 2025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음악회

28

뉴스룸 3

세아의 기술로

국내 원전 안전 지킨다

– 세아베스틸, 한수원에

‘사용후핵연료 운반용기’ 초도 납품

30

함께의 가치

기술 융합과 협업으로

공략하는 미국 세일가스 시장

– 세아창원특수강 세아업작상

온상 수상팀

36

부캐의 발견

공은 둥글다, 인생도 그렇다

– 세아 M&S 이병찬 사원

40

맛의 추억은 철을 타고

끊을 수 없는 마성의 K-간식

– 떡볶이

44

세계 속 세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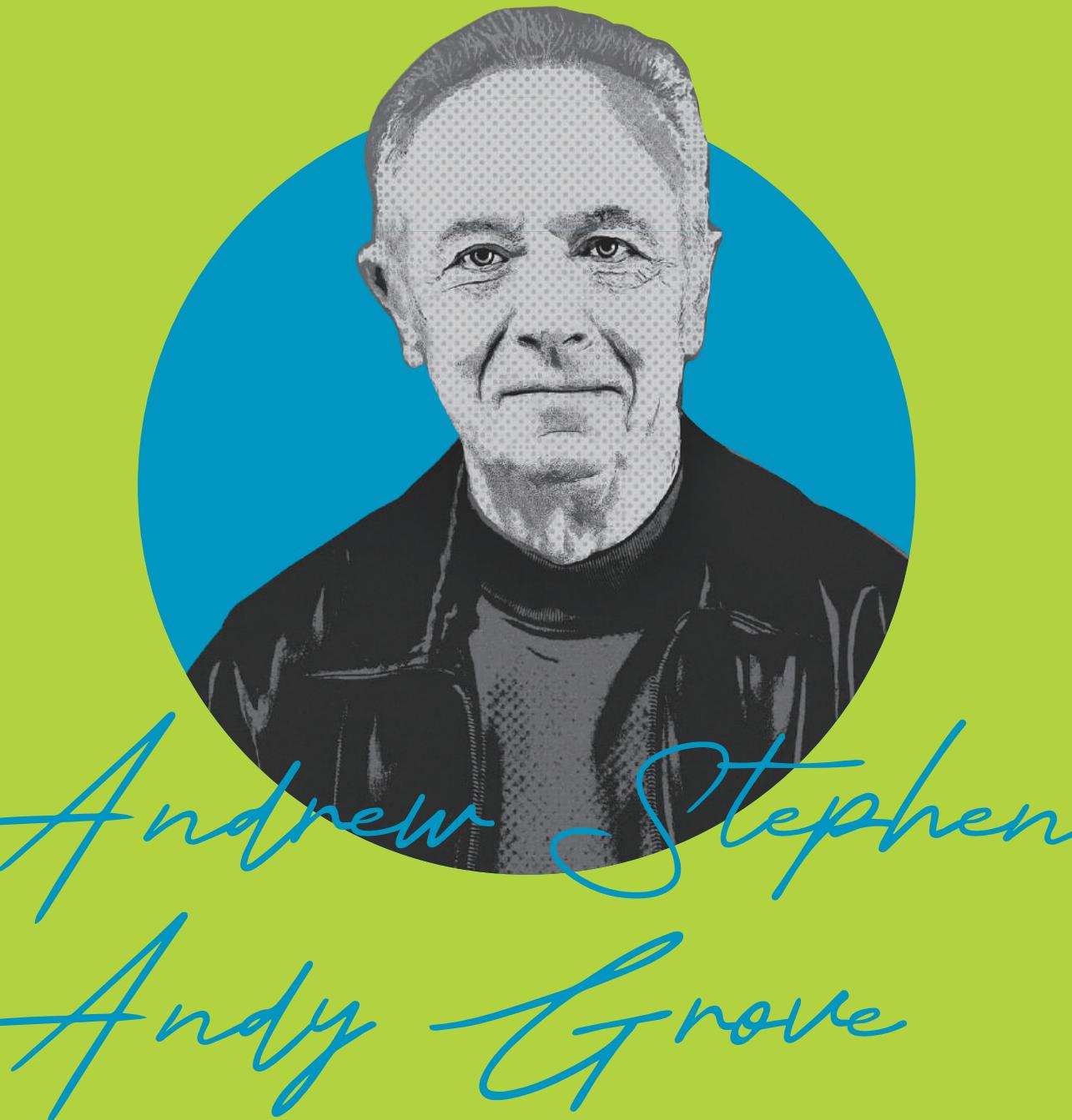
고품질 강관으로 중국 시장에서

‘스마트 성장’ 이어가는

SeAH CTC

SeAH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한 문장



편집광만이 살아남는다

앤디 그로브

인텔을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으로 이끈 전설적인 CEO,
앤디 그로브(Andy Grove).

그는 모든 기업이 성장 과정에서 한 번쯤 '전략적 변곡점'을 맞닥뜨린다고 말했다.
산업 구조와 경쟁 방식이 급변하는 순간,
그 흐름을 어떻게 읽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
기업과 개인의 운명은 극명하게 갈린다.

앤디 그로브는 이러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편집광적인 연구개발 의지'를 강조했다.

변곡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경계하고,
상식의 틀을 깨는 과감한 시도로 스스로를 혁신하는 사람만이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믿은 것이다.

지금 이 시대는 혼돈이라 불릴 만큼 변화의 속도가 거세다.
위기와 기회의 경계는 흐려지고 있으며,
이 변곡점을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미래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본질을 깨뚫는 통찰력과 과감한 선택, 그리고 집요한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
불확실한 흐름 속에서도 방향을 잊지 않는 힘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다.

끝까지 파고들고, 포기하지 않는 편집광적 의지만이 변곡점을 돌파한다.

AI 시대의 항해술, ‘디지털 문해력’

글. 전승민
과학기술전문 저술가

인공지능(AI)이 사람 대신 판단하고, 로봇이 일을 대신 하는 세상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직업상 많은 이들과 이런 변화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대중이 기술의 진보에 느끼는 불안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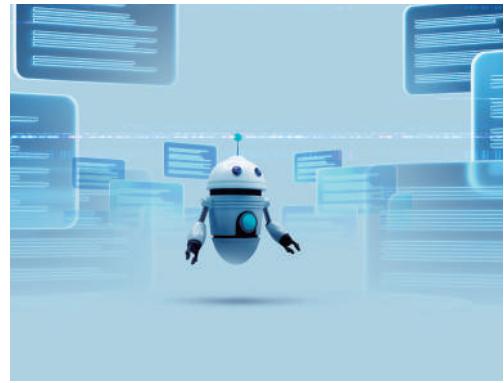
먼저 가장 흔한 우려는 ‘고도로 발전한 기계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학기술적,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지만, 일반 대중이 이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그리 많지 않다.

대중의 직접적인 불안은 오히려 ‘새로운 시대에 대한 적응’에 있다. AI를 비롯한 첨단 문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뒤쳐지는 것, 그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현실적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적지 않다. 세계경제포럼(WEF)이 2023년 발표한 ‘일자리의 미래(The Future of Jobs)’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 변화와 자동화로 인해 2027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8,3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물론 새롭게 생겨나는 일자리도 있는데, 이는 6,900만 개 정도라고 한다. 단순 계산해도 약 1,40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새로 생기는 일자리들은 대부분 첨단 산업 분야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종사자 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직업군에는 데이터 입력, 행정 비서, 회계 경리 등 예측 가능한 패턴을 가진 업무가 포함돼 있다. 이미 국내 금융권에서도 단순 상담 업무를 AI 챗봇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제조업 현장에서도 로봇 기술 도입으로 생산적 일자리가 감소하는 추세다. 이는 단순히 몇몇 직업이 사라지고 새로 생기는 차원을 넘어, 노동 시장이 요구하는 핵심 역량 자체가 완전히 재편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과거의 지식과 경험만으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구조적 전환 앞에서, 개인과 사회가 느끼는 불안은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지각 변동은 교육 현장도 예외가 아니다. ‘미래 인재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자신 조차 준비되지 않은 미래를 다음 세대에게 안내해야 하는 혼란의 중심에 서 있다.

DIGITAL LITERACY



AI 시대, 정말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를 맞아 ‘첨단 ICT(정보통신기술)’ 관련 지식과 기술을 갖춰야 한다고 말한다.

프로그래밍, 일명 ‘코딩’을 배우는 열풍도 이와 같은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물론 이런 기술은 일정 부분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직무에 꼭 필요한 역량이라 보기 어렵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과 기계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다. 사람이 AI와 로봇에게 일을 옮바르게 지시하고, 그 작동 원리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이 점에서 최근 크게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 ‘디지털 문해력(Digital Literacy)’이다.

디지털 문해력은 디지털 환경과 미디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정보를 정확하게 판단해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세부적으로는 △정보 판단 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디지털 환경에서의 의사소통 능력 △창의적 사고 및 문제 해결 능력 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능력과 비판적 사고능력도 뒷받침돼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디지털 문해력을 뒷받침하는 ‘기초 언어 능력’이다. 국어나 외국어, 특히 영어 역량은 디지털 시대의 도구 사용 능력 끝지 않게 중요하다.

인간은 결코 혼자 일하지 않으며, 타인 그리고 기계와 소통하며 최적의 시너지를 낸다. 이 과정에서 올바른 의사소통 능력이란 그 자체로 생산성이다. 과거에는 이런 기본 없이 특정 기술을 몸에 익히면 전문가로 대우받았으나, 이제는 AI와

로봇이 그 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해내고자 하는지를 스스로 정의하고, 그 목적을 위해 주위와 소통하며 결과를 만들어내는 역량이 한층 더 중요해진다.

정확하고 구조화된 ‘질문’이 AI를 움직인다

이러한 역량의 중요성은 실무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Chat GPT 같은 ‘대화형·생성형 AI’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수년 전만 해도 AI를 활용하려면 컴퓨터 시스템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기술적 소양이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AI 환경은 ‘누구나 키보드나 음성인식을 통해 언어로 지시, 혹은 질문하면 손쉽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세상’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때 핵심은 ‘프롬프트(prompt)’, 즉 AI에게 주는 질문이다. 같은 AI 모델이라도 사용자의 질문 수준과 구체성에 따라 결과물의 질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진다.

예를 들어, 단순히 ‘비건 화장품 마케팅 전략 좀 짜줘’라는 요청은 너무 막연하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프롬프트는 전혀 다른 결과를 이끌어낸다.

‘20대 여성용을 타겟으로 하는 비건 화장품 신규 브랜드를 런칭할 예정이야.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초기 매출을 확보하기 위한 3개월짜리 소셜미디어(인스타그램, 틱톡 중심) 마케팅 전략을 제안해 줘. 예산은 월 500만 원이고, 핵심성과지표(KPI)는 팔로워 수 증가와 웹사이트 트래픽으로 설정했어. 구체적인 콘텐츠 아이디어와 주간 포스팅 일정을 포함해, 보고서 형식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줘.’

실제로 이와 같은 프롬프트를 그대로 Chat GPT에게 입력해 봤다.

그러자 A4 수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불과 몇 초 만에 작성해 보여준다. 전략목표, 타겟분석, 각 소셜미디어 채널별 전략, 주간 스케줄, 심지어 콘텐츠 아이디어와 향후 확장전략 까지 제시했다. 구체적인 맥락과 조건을 제공했기에,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전략 초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구조화해 언어로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곧 AI를 움직이는 힘이다. 이 과정은 곧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사고력의 과정과도 일치한다.

좋은 프롬프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행착오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AI에게 마음에 드는 결과를 얻기까지 수십 차례, 경우에 따라 수백 차례 프롬프트를 다듬어야 한다. 결국, AI를 잘 다루는 힘은 질문을 정교하게 만드는 사고력에서 비롯된다.

다시 ‘기본기’로 돌아가야 할 때

단순히 생성형 AI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문해력’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좋은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과정은 한편의 논리적인 글을 쓰는 과정과 의외로 닮았다. 해결할 문제가 무엇인지 정의하고(주제 설정), 원하는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설정하며(논거 제시), 명료한 언어로 전달하는(문장 구성) 능력은 모두 인문학적 사유의 산물이다.

따라서 ‘AI 시대에는 코딩을 배워야 한다’는 단순적 사고보다, 기초 학문인 국어, 수학, 영어 등 기본기를 다지는 교육이 오히려 더 중요해질 수 있다. 직장인이라면 자신의 업무 기반을 다시 구조화하고, AI를 활용해 어떻게 더 빠르고 정확하게 사고력을 보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책을 통해 맥락을 파악하고, 글쓰기를 통해 생각을 구조화하며, 토론을 통해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고전적인 훈련이 AI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다. AI가 ‘무엇’과 ‘어떻게’에 대한 답을 순식간에 내놓는 시대일수록, 인간은 ‘왜’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 최소한의 기술적 이해는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운전을 잘 하려면 자동차의 기본 구조를 알아야 하듯, AI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AI의 학습 원리, 컴퓨터나 로봇의 기계적 구조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AI가 어떤 데이터로 학습했고,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는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하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다.

‘디지털 문해력’은 단순히 명령어를 외우거나 앱을 잘 다루는 단편적인 기술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시대를 관통하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인문학적 사유, 기술의 원리와 함께를 아우르는 융합적 지혜에 가깝다. 이 새로운 지혜를 갖춘 사람만이, 다가오는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





기술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스마트팩토리'를 위해

세아제강 SMART기술팀

박광진 팀장, 송정훈 과장
정우석 과장, 전규영 대리
서인환 대리, 박정영 대리
신우익 대리, 이주연 사원

스마트팩토리는 이제 철강산업에서도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세아제강 SMART기술팀은 디지털 전환(DX) 및 인공 지능(AI) 기술을 현장에 접목해 생산성과 품질, 안전 수준을 한층 높이며 새로운 제조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다. 기존 기술의 한계를 해소하고 제조 현장의 혁신을 이뤄내고 있는 SMART기술팀의 노력과 비전을 들어봤다.

SMART FACTORY



**SMART기술팀은
현장의 문제를 신속히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을 적용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스마트 기술로 강화하는 생산성과 안전성

세아제강 포항공장 내 생산설비, 품질 및 안전 분야에 요구되는 기술을 조사하고 적용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SMART 기술팀. 이들이 수행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임무는 각 사업장의 스마트팩토리 전환을 지원하는 일이다. 박광진 팀장을 비롯한 8명의 팀원들은 공정별 특성과 현장의 니즈를 파악해 맞춤형 스마트 솔루션을 개발·적용하며 세아제강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고 있다.

“누가 먼저 새로운 기술을 시도하고 현장에 안정적으로 적용하느냐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SMART 기술팀은 현장의 문제를 신속히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을 적용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우석 과장은 DX·AI 융합 추진 배경을 설명하며, 공정이 복잡하고 변수가 많은 제조업의 특성상 품질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 기반 분석과 AI 예측 기술이 현장의 난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DX·AI 융합으로 스마트해진 포항공장

SMART기술팀이 주도한 DX·AI 융합 성과는 품질관리부터 공정 제어, 설비 운영까지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다. 먼저 품질관리 부문에서는 ‘AI 기반 물성 예측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존에는 제품 생산 이후 검사 결과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는 방식이었다면, 현재는 원재료의 화학 성분과 기계적 성질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완제품의 물성을 예측해 사전에 품질 이상을 감지할 수 있다. 또한, 공정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AI 이상 탐지 모델’의 도입도 검토 중이며, 향후에는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시뮬레이션 시스템과 연계해 발생 가능한 품질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열처리로(HT22)에는 유지 모드 자동화 시스템을 적용해, 작업자 세어 없이도 디지털 트윈 시스템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오는 7월 정식 운영을 앞두고 있으며, 본격적인 가동 이후에는 야간 인건비 절감과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이외에도 JCO 용접 공정에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해 진압, 벌열량, 속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고, 생산 관리 시스템(MES)과 연동해 공정 상태를 원격으로 모니터링 하며 불량품 생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대경공장에는 OCR(광학문자판독) AI 시스템을 도입해 원재료 정보를 자동으로 판독하고, 생산 투입 보고도 자동 처리되도록 개선했다. 소경1공장에는 AI 기반 영상인식 시스템을 통해 차량 정차 위치와 코일 적재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작업 안전성과 공정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또한, 코일 원재료 플레이트 두께 측정 시 레이저 센서를 적용해 $\pm 0.1\text{mm}$ 수준의 정밀도로 실시간 자동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다.

전규영 대리는 “제조업에서 제품 품질은 원재료와 공정 조건에 의해 민감하게 좌우되므로, 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에 예측하는 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의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예측’ 중심의 품질관리 체계 고도화를 목표로 DX·AI 융합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SMART기술팀은 탄소강관 제조, 열연코일 하역, 후판 성형 공정에도 DX·AI 기술을 폭넓게 적용하며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소경공장 강관 제조 공정에는 라인 레이저와 비전 카메라를 활용한 ‘정밀 길이 측정 시스템’을 도입해 제품 품질을 크게 향상시켰고, 이를 중경공장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열연 코일 하역 작업에는 ‘딥러닝 머신비전 기술’을 적용해 차량, 코일, 작업자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이외에도 후판 성형 공정에는 ‘자동 측정·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성형 상태를 정밀하게 관리하고,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정 효율을 개선하고 있다.

데이터와 사람을 잇는 스마트 현장

“업무가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개선됐다는 피드백을 받았을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기술 도입이 일시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현장과 긴밀히



16



SMART기술팀은 기술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스마트팩토리를 완성해 나가고 있다.

연결돼 지속 가능한 공장 혁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아주
연사원이다.

이처럼 SMART기술팀은 단순한 기술 도입에 그치지 않고,
기술이 현장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 박정영
대리는 “DX·AI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그것이 현장의 사람
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가 진정한 변화의 관건”이라
며,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현장과 사람이 소외된다면 그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SMART기술팀은 현장 직원들을 위한 DX·AI 교
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스마트 기술 활용 역량을 높이고 있다.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배운 내용을 실제 현장의 문제 해

결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것이다. 동시에
SMART기술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
다. 국내외 유수 컨퍼런스 참가 및 전문 교육과정을 통해 최
신 기술 동향을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 자문
과 선도 기업 사례 벤치마킹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실질적
인 지식과 경험을 폭넓게 교류하고 있다. 더불어 수평적인 내
부 소통과 지식 공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건설적으로 오가
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박광진 팀장은 “SMART기술팀은 ‘AI·DX 기술을 통한 혁신
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 추구’라는 비전을 가지고, 세아

제강의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실험적인 도전을 계속하겠다”
며 팀의 포부를 밝혔다. 그는 AI·DX 혁신이 팀 단독으로는
완성될 수 없는 과제이며, 세아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각 현업 부서에서도 AI·
DX 기술을 통해 만들어갈 수 있는 변화의 가능성을 함께 고
민해주길 바란다면,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제안들이 적극적
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했다.

향후 SMART기술팀은 원재료와 설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총 정교한 품질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정 제어의 자동화
수준을 고도화해 제조 운영 전반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극대
화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SMART기술팀이 추구하는 것은 공정 고도화를
넘어, 작업자가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고자 하는 세아의 기업 정신을 기술로 실현하는 구체적인 여
정이기도 하다.

사람을 위한 기술, 신뢰할 수 있는 품질, 안전한 일터. SMART
기술팀은 기술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스마트팩토리를 완
성해 나가고 있으며, 이 혁신을 바탕으로 세아제강은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환경과 사회적 책임까지 실현하는 기
업으로 성장해나갈 것이다. ◉

다시 뛰는 철강, 그곳의 세아
제18회 철강 마라톤대회

철강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철강인의 화합을 도모하는 '철강 마라톤대회'가 지난 5월 17일, 경기도 하남시 미사 경정공원에서 열린 것이다. 전날 쏟아진 폭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봄의 절정을 머금은 화창한 날씨가 철강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세아그룹 임직원들도 1년 만에 다시 열린 철강업계의 축제에 참여해 역동적인 하루를 보냈다.



‘다시 뛰는 철강!
함께 여는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대회는 올해로
18회를 맞이했다.

대한민국 철강인의 화합의 장

‘2025 철강 마라톤대회’를 하루 앞둔 5월 16일 밤, 철강인들은 밤새 노심초사했다. 갑작스럽게 몰아친 폭우와 비바람으로 인해 다음 날 대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새벽이 되자 빗줄기는 점차 잣아들었고, 행사를 준비하는 스태프들의 손길은 더욱 분주해졌다. 폭우로 인해 일부 구조물이 무너지거나 파손됐지만, 밤새 이어진 복구 작업 끝에 행사장은 차질 없이 정비됐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힘쓴 이들의 노력 덕분에, 5월 17일 아침 화사한 햇살 속에서 5천여 명의 철강인들은 가족과 함께 밝은 얼굴로 행사장을 찾을 수 있었다.

‘다시 뛰는 철강! 함께 여는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대회는 올해로 18회를 맞이했다. 철강 산업의 재도약을 기원

하는 염원을 담은 행사답게,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행사장 메인 무대에는 ‘철강 숏돌이’, ‘베스트 슛터’ 등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협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포토월과 심폐소생술 교육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운영됐다. 참가사들의 부스도 행사장 곳곳에 자리 잡은 가운데, 세아그룹 부스 역시 각 계열사 임직원들과 가족들로 북적이며 활기를 더했다. 참가자들은 곧 시작될 레이스를 앞두고 몸을 풀며 현장 분위기를 즐겼다.

오전 8시 30분, 방송인 김한석의 사회로 힘차게 행사의 막이 올랐다. 참가자들은 질서를 지키며 무대 앞으로 모였고, 치어리더들의 공연과 함께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장인화 철강협회 회장 겸 포스코그룹 회장 등 업계 주요 인사들이 개회를 선언했다. 무대와 행사장 곳곳에서 박수와 환호, 그리고 힘찬 함성이 울려 퍼졌다.





**세아 참가자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가족의 손을 잡고,
동료와 나란히 달리는
세아인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웃음이 가득했다.**

동료와 뛰고, 가족과 웃는 마라톤

개회식이 끝나자 참가자들은 출발선 앞으로 모였다. 대회는 10km와 5km 두 코스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특히 5km 코스에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대거 참여해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5, 4, 3, 2, 1, 출발!” 힘찬 카운트다운과 함께 출발선 너머로 달려 나가는 철강인들. 그 틈으로 세아 참가자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가족의 손을 잡고, 동료와 나란히 달리는 세아인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웃음이 가득했다.

레이스는 각자 다른 속도로 펼쳐졌다. 기록 경신을 목표로 전력 질주하는 참가자, 꾸준히 페이스를 유지하는 참가자, 그리고 동료나 가족과 함께 달리는 그 자체에 의미를 두며 서로의 속도를 맞춰가는 참가자까지. 다양한 모습이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안전하게 완주하는 것. 화사한 햇살 아래, 바람에 흘날리는 땀방울과 웃음이 어우러져 행사장은 활기로 빛났다.

약 20분 후, 결승점을 통과하는 참가자들의 모습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 5km 코스를 완주한 세아창원특수강 안전환경팀 손영준 사원과 김병찬 사원도 숨을 고르며 땀에 젖은 얼굴로 환한 미소를 지었다.

손영준 사원은 “이번 목표가 ‘한 번도 안 쉬고 뛰자’였는데, 두 번밖에 안 쉬었다”며 너스레를 떨었고, 김병찬 사원은 “작년 보다 더 잘 뛰자는 마음으로 참가했는데, 27분 30초에 들어 와 성취감이 크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늘의 도약으로 내일을 향해

세아그룹 참가자들 중 5km 코스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주인공은 세아제강 STS수출팀 이성훈 과장이었다. 21분 30초라는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한 그는 “정말 힘들었지만 1등이라는 말에 피로가 싹 풀렸다”며 “큰 기대 없이 뛰었는데, 끝까지 멈추지 않은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기쁨을 전했다.

초등학교 3학년 자녀와 함께 참가한 세아제강 구매2팀 도영원 과장은 “어제 비가 많이 내려 걱정했는데, 다행히 맑은 날씨 덕분에 뛰기 딱 좋았다”며 “아들과 함께여서 더욱 기억에 남을 추억이 됐다”고 환하게 웃었다.

초등학교 2학년 자녀와 함께 마라톤에 참가한 것이 벌써

여섯 번째라는 세아베스틸지주 경영기획팀 김창현 차장은 “아들이 마라톤에 점점 흥미를 느끼고 기록도 좋아져서 기특했다. 앞으로도 이런 소중한 경험을 함께 이어가고 싶다”고 완주 소감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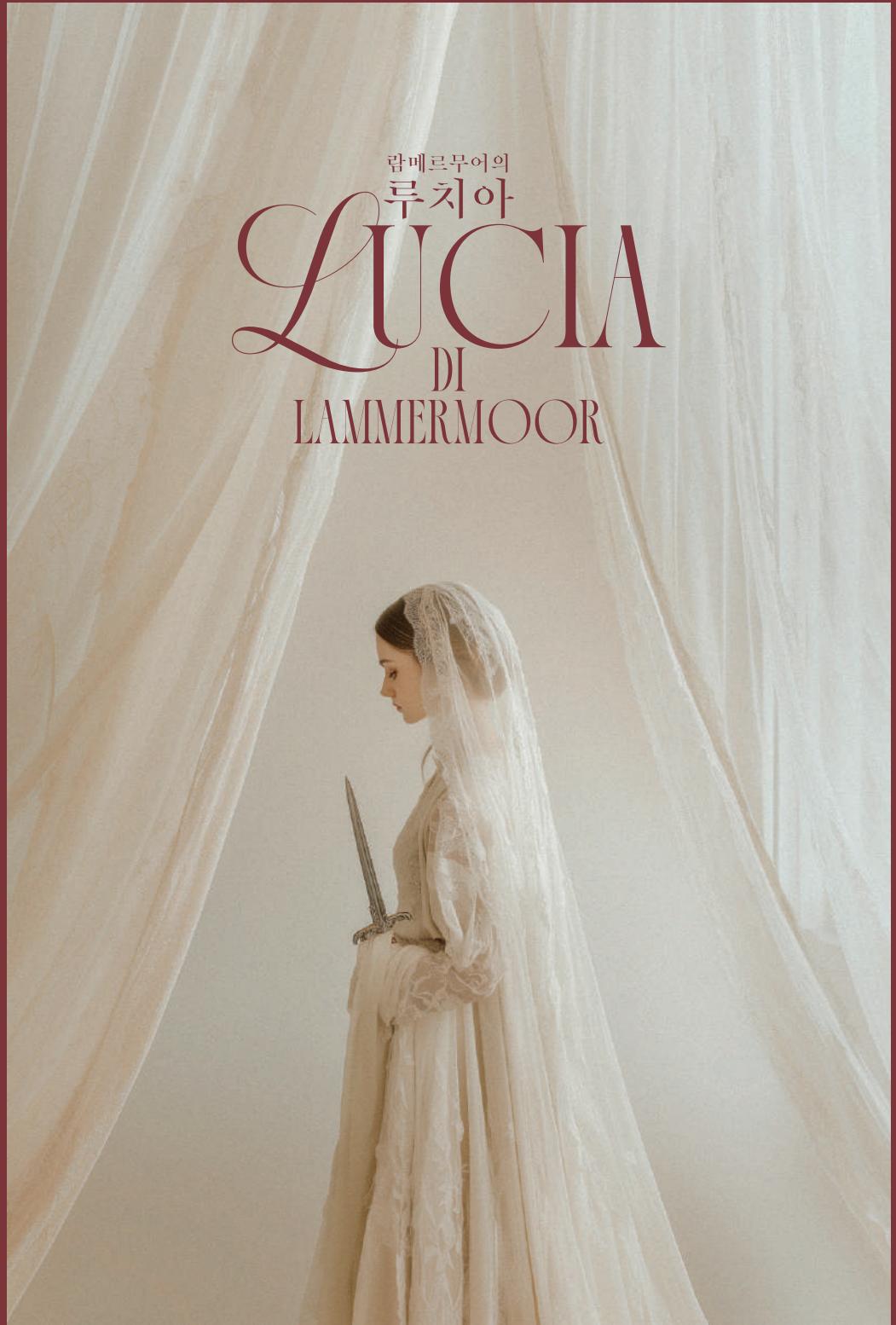
한편, 10km 레이스에서는 세아베스틸지주 경영총괄 박준이사가 42분이라는 뛰어난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 박성준 이사는 “매일 달리기를 하며 준비해온 보람이 있다. 오늘은 특히 날씨가 더웠는데도 좋은 기록을 세워서 기분이 좋다. 늘 수고하는 세아 식구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마라톤을 완주한 세아 참가자들은 부스에 마련된 풍성한 뷔페와 시원한 음료로 지친 몸을 달랬고, 이어진 경품 이벤트에서는 음료 쿠폰, 비타민, 홍삼, 장난감 등 푸짐한 선물이 더해져 현장은 웃음과 활기로 가득 찼다.

마지막 기념촬영을 위해 카메라 앞에 모인 세아 임직원들은 “세아!”를 힘차게 외치며 서로의 어깨를 맞대고 환한 웃음으로 기념 촬영을 마쳤다.

누구보다 뜨겁게 달리고, 함께 웃으며 하나로 뭉친 세아. 제 18회 철강 마라톤 대회는 단순한 달리기를 넘어, 철강 산업의 힘찬 도약과 세아인의 끈끈한 동료애를 다시금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LUCIA
DI
LAMMERMOOR

초여름의 밤공기 속, 미루나무와 대나무 숲 사이로 난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야생의 풀과 꽃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야외공연장이 나타난다. 지난 5월 23일과 24일, 부산 F1963 야외공연장에서 ‘2025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음악회’가 열리며 시민들에게 또 한 번 잊지 못할 밤을 선사했다. 올해 작품은 도니제티의 오페라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별빛 아래 펼쳐진 비극의 선율이 관객들의 마음을 적시며 깊은 감동을 전한 특별한 시간을 소개한다.

별빛 아래 울려 퍼진 사랑과 운명의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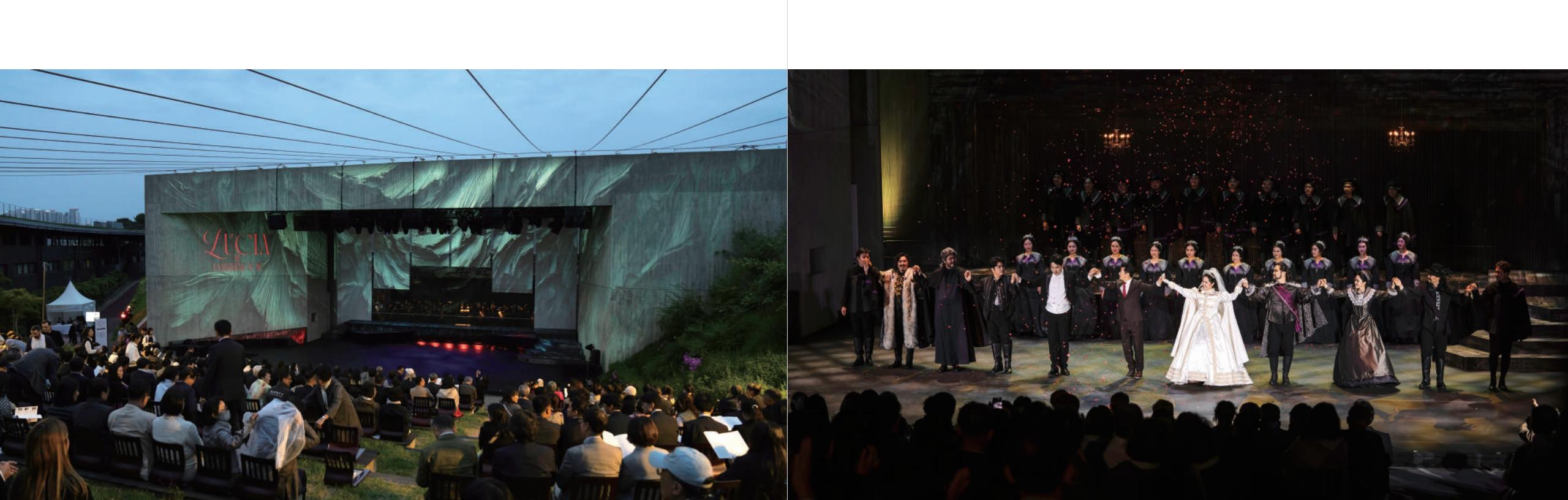
자연 속에서 만나는 오페라의 진수

세아이운형문화재단과 문화재단1963이 함께 마련한 네 번째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음악회’가 지난 5월 23일과 24일 저녁 7시 30분, 부산 F1963 야외공연장에서 개최됐다. 올해도 어김없이 전석 무료 초청으로 진행된 이번 공연은 예매 오픈과 동시에 매진되는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을 이뤘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음악회’는 故 이운형 선대회장의 문화예술에 대한 애정과 뜻을 이어가며, 지역 민들에게 격조 있는 클래식 공연을 선물하는 대표적인 메세나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 역시 수많은 관객이 자연과 오페라가 어우러진 무대에서 명작을 감상하며 초여름 밤의 낭만을 만끽했다.

이번 무대에 오른 작품은 이탈리아 벨칸토 오페라의 거장 가에타노 도니체티(Gaetano Donizetti)의 ‘람메르무어의 루치아(Lucia di Lammermoor)’. 스코틀랜드 작가 월터 스콧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은 19세기 스코틀랜드를 배경으로 사랑과 집안의 대립, 비극적인 운명이 얹힌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작품은 가문의 명예와 권력을 지키려는 오빠 엔리코 애슈턴이 여동생 루치아를 권리자인 아르투로와 강제로 결혼시키려 하며 시작된다. 그러나 루치아는 가문의 적이자 자신의 연인인 에드가르도와 비밀리에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 이를 알게 된 엔리코는 루치아에게 에드가르도가 그녀를 배신했다는 거짓 편지를 보여주며 속이고, 결국 루치아는 원치 않는 결혼을 치르게 된다.

결혼식 직후, 충격과 절망에 빠진 루치아는 정신이 혼미해져 ‘광란의 아리아’를 부르며 아르투로를 살해하고, 끝내 자신도 생을 마감한다. 루치아의 죽음을 알게 된 에드가르도 역시 절망 속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두 연인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는 막을 내린다.



무대의 별, 관객의 환호

이번 공연 역시 이름만으로도 기대감을 높이는 제작진과 출연진이 함께했다. 연출은 섬세한 인물 심리 묘사로 호평받는 윤상호 연출가가 맡았고, 지휘는 데이비드 이가 이끌었다.

주인공 루치아 역에는 세아이운형문화재단 후원 인재인 소프라노 문현주가 출연했다. 지난해 ‘리골레 토’의 질다 역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녀는 이번에도 섬세한 감정 표현과 폭발적인 고음으로 관객의 기립박수를 이끌어냈다. 에드가르도 역은 테너 손지훈이 맡아 열연을 펼쳤고, 엔리코 역은 바리톤 안정민이 맡아 극의 몰입감을 더했다.

이번 음악회는 합창과 오케스트라, 현대무용이 어우러지며 더욱 풍성한 무대를 완성했다. 노이오페라 코러스는 국내 유수의 오페라 무대와 클래식 공연에서 활약해온 전문 합창단으로, 오페라 특유의 드라마틱한 전개와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 강점을 지니고 있다. 이번 ‘람메르무어의 루치아’에서도 극적인 순간마다 섬세하고도 힘 있는 코러스로 장면의 몰입도를 한층 높였다.

한경아르떼필하모닉은 클래식 본연의 깊이와 현대적인 감각을 아우르며 국내외 오페라와 협연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교향악단이다. 이번 공연에서도 특유의 세밀한 표현력과 균형 잡힌 음향으로 극의 분위기를 탁월하게 이끌었다. 오페라와 현대무용의 협업을 선보인 안다미로아트컴퍼니 역시 예술적 풍성함을 더하며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별빛과 선율로 채운 부산의 밤

세아이운형문화재단은 2015년부터 대중이 쉽게 접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오페라 작품을 엄선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오페라 베켓’을 선보여 왔다. 2022년부터는 문화재단1963과 함께 부산에서 야외 오페라 음악회를 개최하며,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오페라의 감동을 전하고 있다.

공연을 마친 세아이운형문화재단 박의숙 이사장은 “올해도 부산 시민들과 아름다운 오페라의 밤을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예술을 통해 마음을 옮기고 위로하는 시간이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문화재단1963 위미라 이사장은 “이번 음악회가 부산이 일상 속에서 예술을 가까이하는 도시로 성장하는 데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자연과 사람, 명작이 어우러진 2025년의 특별한 음악회. 그날 밤의 선율과 감동이 관객들의 마음 속에 오래도록 남기를 기대해 본다. ◉



세아의 기술로 국내 원전 안전 지킨다

**세아베스틸, 한수원에
'사용후핵연료 운반용기' 초도 납품**

세아베스틸이 국내 원전 안전 관리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국내 최초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인증을 획득하며 북미 수출에 성공한 '사용후핵연료 운반·저장 겸용 용기' 제작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한국수력원자력에 'KN-18 사용후핵연료 운반용기' 초도 물량을 성공적으로 납품했다. 세아베스틸은 이를 통해 원자력 설비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제조기술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KN-18 초도 납품을 계기로
원자력 설비 분야에서
더욱 높은 기술의 벽을 넘어,
글로벌 강자로 도약하길
기대해 본다.**



세아베스틸은 지난 2023년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약 350 억 원 규모로 수주한 'KN-18 사용후핵연료 운반용기'의 초도 납품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이 제품은 국가 전력수급기본 계획에 따라 전남 영광에 위치한 한빛원자력본부에 인도됐으며, 하반기에는 경북 울진의 한울원자력본부에도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세아베스틸이 제작한 'KN-18 사용후핵연료 운반용기'는 감속재와 냉각재로 물을 사용하는 경수로형 원자로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1기당 18다발 운반할 수 있는 제품으로, 설계 개선을 통해 기존 모델보다 완성도를 한층 높였다.

현재 국내 원전의 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점차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KN-18 사용후핵연료 운반용기'는 고준위 방사성 물질인 핵연료를 안정적으로 차폐하고, 지진이나 외부 충격 등 극한의 조건에서도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세아베스틸은 지난 2022년 국내 최초로 미국 원자력규제 위원회(NRC)의 품질보증 프로그램 심사를 통과했으며, 납품 기준이 엄격하기로 정평난 미국 에너지 유탈리티기업 엑셀에너지(Xcel Energy)에 '사용후핵연료 운반·저장 겸용 용기'를 공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북미 시장 내 기술력을 입증하며 원자력 설비 분야의 글로벌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습식 저장시설은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2032년 한울·고리



원전까지 순차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원자력 협회(WNA) 또한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약 40만 톤 이상의 핵연료가 누적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운반·저장용기의 수요와 수주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아베스틸 관계자는 "이번 'KN-18 사용후핵연료 운반용기'의 초도 납품은 국내 원자력 생태계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세아베스틸의 제조 기술력과 신뢰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라며 "기술 진입 장벽이 높고 납품 이력과 기술 안전성이 핵심 기준이 되는 원자력 시장에서, 지속적인 기술 투자 및 국책과제 참여를 통해 원자력 설비 주요 공급자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아베스틸이 이번 KN-18 초도 납품을 계기로 원자력 설비 분야에서 더욱 높은 기술의 벽을 넘어, 글로벌 강자로 도약하길 기대해 본다. ☕



기술 융합과
협업으로 공략하는
미국 세일가스 시장

세아창원특수강
세아업적상 은상 수상팀

수많은 고민과 끈질긴 시도가 모여 이룬 결실. 세아창원특수강 세아업적상 은상 수상팀이 미국 세일가스 시장의 벽을 뛰어 넘었다. 첨단 기술과 부서 간 경계를 넘은 협업의 힘이 만나, 단순한 신제품을 넘어 ‘신뢰’와 ‘혁신’이라는 이름의 경쟁력을 만들어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기술력을 입증하고 신뢰를 구축하며, 고수익을 실현하고 신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한 업적상 수상팀을 소개한다.

630 Stainless steel 대비
동등한 강도를 유지하면서도,
월등히 높은 충격 인성과
고정정 특성을 갖춘
고성능 단조 소재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냈다.

신뢰를 기반으로 시작된 고객사의 요청

미국 세일가스 시장을 겨냥한 핵심 부품 'Fluid End용 GEN 5 Forged Block(이하 GEN 5 Forged Block)' 개발에 성공하며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입증한 세아창원특수강 세아업적 상은상 수상팀.

고객사의 요청으로 시작된 본 프로젝트는 단순한 신제품 개발을 넘어, 고객 신뢰 확보와 기술 리더십 입증을 위한 중대한 과제였다.

세아창원특수강은 영업, 생산, 연구, 품질 등 각 부서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융합 팀을 구성했다. 이렇게 탄생한 업적상 수상팀은 630 Stainless steel 대비 동등한 강도를 유지하면서도, 월등히 높은 충격 인성과 고정정 특성을 갖춘 고성능 단조 소재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냈다.

표주영 팀장은 "Fluid End Block은 세일가스 및 천연가스 추출 설비의 고압 펌프 핵심 부품으로, 이 부품의 성능은 장비의 안정성과 직결된다"며, "기존 630 Block 대비 합금 함량을 줄이는 동시에 동일 수준의 강도를 확보했고, 반복적인 고압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저온 충격 인성을 두 배



"이상 높인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이를 통해 극한의 고압 환경에서도 뛰어난 내구성과 안정성을 제공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문수 주임은 "엄격하고 정밀한 품질관리체계를 적용하는 한편, 열처리로의 온도 균일성을 확보해 대형 단조 제품의 성능 편차를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업적상 수상팀은 설비 개선을 통해 열처리 공정을 안정화하고, $\pm 8^\circ\text{C}$ 이내의 온도 균일성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대형 단조 제품의 특성 상 발생하기 쉬운 중심부와 표면 간 품질 편차를 효과적으로 줄였다.

제품의 모든 영역에서 동일한 특성을 확보한 점 역시 GEN 5 Forged Block의 차별화된 강점이다. 여기에 원가 경쟁력과 경제성까지 더해, 성능 향상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점을 고객사에 제공했다.

2년에 걸친 도전과 극복

제강 공정에서는 최적의 정련 조건을 수립했고, 단조 공정에서는 블록의 표면부터 중심부까지 재질이 균일하게 나올 수 있도록 최적의 공정 방안을 마련했다. 열처리 공정에서는 대형 열처리로에 투입된 제품이 어느 위치에서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개조하고, 공정 조건 또한 세밀하게 조정했다. 이문수 주임은 "이처럼 공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GEN 5 Forged Block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개발 전 과정에서 미국 고객사와의 긴밀한 기술 협의도 이어졌다. 초기 단계부터 주간 화상회의를 통해 고객의 요구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품질과 공정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이와 관련해 표주영 팀장은 2022년 6월 키프 미팅 이후 약 3년 동안 150번이 넘는 화상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 시간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미국 시간으로는 목요일 오후 6시에 고객사와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했고, 이러한 꾸준한 소통이 GEN 5 Forged Block 개발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물론 개발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이해원 연구원은



"강도와 저온 충격 특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합금 설계 도출이 쉽지 않았다"며, "Cr 당량과 충격 특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Ni 외 합금 원소를 조정해 최적 조성을 도출했다"고 회상했다.

또 하나의 과제는 제품 편차를 줄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설비 투자와 모니터링, 문헌 연구 등 다방면의 개선 노력을 기울였고, 유관 부서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고객의 요구에 맞춰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했다.

유지원 과장은 "특히 열처리 설비의 온도 공차가 큰 과제였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해 긴급 투자를 결정하고, 신규 설비를 도입해 까다로운 품질 요구를 만족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GEN 5 Forged Block 개발에는 기존 제품과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했다. 설계부터 생산, 품질 평가에 이르기까지 고객사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업무 방식은 물론 태도에 있어서도 새로운 전환이 필요했다. 수많은 변수와 난관을 극복해 낸 끝에 2022년 6월부터 약 3년간 지속된 GEN 5 Forged Block 개발은 현재 마무리 단계이며, 양산 승인이 완료되면 판매 확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팀워크로 이룬 성과

대형 단조 제품의 품질 편차를 줄이기 위한 공정 개선과 열처리 설비 최적화에 주력한 단조팀 표주영 팀장, 의주 가공 공정 전반을 관리하며 품질, 원가, 납기 삼박자를 맞추는 데 힘쓴 이문수 주임. 제강 및 정련 공정에서 내부 결함 최소화와 품질 균일성 확보에 집중한 정지호 과장. 기술총괄 및 일정 관리, 고객사와의 기술 협의를 맡은 서보경 과장. 제품 품질 평가를 담당한 이해원 연구원. 주조 및 단조·열처리 공정 최적화에 힘쓴 김한규·김동민 주임연구원. 품질 관리와 고객사 소통을 담당한 유지원 과장과 노은우 대리. 납기 및 수주 협의로 원활한 영업지원을 담당한 김지훈 대리까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뭉친 10명의 팀원은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동시에, 긴밀한 협업과 소통으로 미션을 완수했다.

정지호 과장은 “오랜 기간 시장을 주도해온 경쟁사들이 버티고 있는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새로운 업무 방식과 태도로 하나하나 과제를 해결해 나갔다”며, “이 과정에서 유관 부서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김한규 주임연구원은 “서로의 업무를 신뢰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한 것이 팀워크의 비결”이라고 전했고, 김지훈 대리는 “직급과 나이를 넘어 작은 문제도 공유하고 협력하는 문화가 높은 수익성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GEN 5 Forged Block 개발을 통해 고수익 실현과 함께 고성능 Forged Block 라인업 확보 및 신규 시장 진출에 성공한 업적상 수상팀은, 향후 다양한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로의 확대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다.



수상팀은 본 제품의 우수한 성능과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보경 과장은 “북미 Oil & Gas 시장은 기술 검증과 신뢰를 중시하는 보수적인 시장이지만, 이번 개발을 통해 세아의 기술력과 품질 수준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다”며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시장 확대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GEN 5 Forged Block 개발은 세아의 기술력과 협업 문화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다.

“부서 간 협력과 끈질긴 개선 노력의 결과가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어려운 도전 속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함께해준 팀원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경험이 앞으로의 업무에도 큰 자산이 되길 바랍니다.”

표주영 팀장의 바람처럼, 이번 성과가 새로운 성과의 자산이 되어 팀원들과 세아가 함께 성장하고 더 큰 도전에 나서는 발판이 되길 기대해본다. ◉

GEN 5 Forged Block 개발은 세아의 기술력과 협업 문화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다.





초여름 햇살이 수직으로 쏟아지는 주말 정오.
조록빛 잔디 위에서 한 남자가 드리블 연습에
한창이다. 세아 M&S 구매팀 이병찬 사원에게
축구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다. 그라운드 위를
누비는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자유롭고, 누구보다
뜨겁다. 그가 축구를 통해 배운 텁워크와 도전,
그리고 긍정의 메시지를 들어봤다.

공은 둥글다, 인생도 그렇다

세아 M&S 이병찬 사원



내성적인 소년, 축구를 만나다

흔자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하는 조용한 아이. 이병찬 사원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회상한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집에서 소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게 더 편했던 그에게 인생의 큰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2002년 한 일 월드컵이었다.

“온 국민이 거리로 나와 함께 응원하고, 붉은 물결로 가득 찬 광경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뭘가 꿈틀거렸어요. 처음으로 축구라는 스포츠가 재미있다고 느꼈던 순간이었죠.”

그 이후 자연스럽게 공을 차기 시작했고,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뛰어다니며 점점 외향적인 성격으로 변해갔다. 이병찬 사원에게 축구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삶의 큰 의미가 됐다. 축구를 만난 이후 그의 일상에는 크고 작은 변화와 값진 경험들이 찾아왔다.



동호회 활동부터 전술 공부까지, 축구 덕후의 일상

그는 고등학교 친구와 동네 친구들로 구성된 축구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다. 대부분 직장인이다 보니 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지만, 매달 1~2회 정기적으로 모여 경기를 치른다. 경기 자체도 즐겁지만,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시간이 소중하다는 이병찬 사원이다.

“달리기가 빠른 편이라 골 넣는 재미가 쏠쏠했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체중도 좀 늘다 보니 예전만큼 속도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수비 포지션으로 내려왔는데, 막상 해보니 의외로 더 재미있어요. 누군가를 막아내고 팀을 지켜낸다는 느낌, 그게 정말 짜릿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빠른 발을 이용해 공격수로 활약했지만, 최근에는 수비수로 포지션을 옮겼다. 상대의 결정적인 찬스를 막아낼 때 느끼는쾌감은 골을 넣는 기쁨과 견줄 만하며, 특히 팀원들과 호흡이 딱 맞아떨어질 때의 순간은 더 없이 짜릿하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답게 응원하는 팀과 좋아하는 선수 이야기도 빠질 수 없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는 ‘아스날’을 좋아해요. 확실한 팀 컬러와 패스 축구의 정석을 보여주는 팀이거든요. EPL 최초로 무패 우승을 한 전설의 팀이기도 하죠.”

닮고 싶은 선수로는 이탈리아의 스트라이커 ‘펠리포 인자기’를 꼽는다. 기본기나 스피드, 슈팅 능력이 특별히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 탁월한 위치 선정 하나로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활약한 점이 인상 깊기 때문이다. 이병찬 사원 역시 그런 지혜로운 플레이어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

최근에는 축구 전술과 트렌드에 대한 공부도 이어가고 있다. 단순히 즐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의 모습은 ‘축구 덕후’라는 표현이 전혀 아깝지 않다.

“요즘 K리그나 유럽 리그를 보면 전술 트렌드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선수들의 움직임이나 패턴 플레이를 분석해보면 저희 팀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여요.”

함께 땀 흘리는 즐거움에 더해 학습하고 분석하는 재미까지. 축구는 이병찬 사원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해준다.

축구의 묘미와 교훈, 그리고 꿈

그는 축구를 통해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팀워크가 승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늘 실감한다고 말한다. 아무리 자신이 잘해도 팀원들의 서포트가 없다면 이길 수 없고, 반대로 팀원들이 잘하더라도 자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팀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축구는 늘 텁플레이를 생각하게 만드는 스포츠라고 강조한다.

또 하나의 교훈은 바로 ‘공은 둑글다’는 사실이다. 경기를 지배하던 팀이 막판 한 골로 무너질 수 있고, 반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축구를 통해 배운다.

이병찬 사원은 회사 생활 속에서도 힘들고 지칠 때면 이 말을 자주 떠올린다고 한다. 인생이라는 경기장에서 공은 어디로 훨지 모르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뛰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는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굴러가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다시 내게 기회가 올 것이라고 믿어요. 중요한 건 준비된 자세로 기다리는 거죠.”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묻자, 그는 망설임 없이 ‘축구 지도자 자격증’이라고 답했다.

“일단 C급부터 시작해서 B급, A급까지 따보고 싶어요. 꼭 프로팀이 아니더라도 동호회나 생활 체육 수준에서 누군가에게 축구를 알려주고 같이 땀 흘리면 정말 뿌듯할 것 같거든요.”

정말 좋아하는 것이 있고, 그 안에서 성장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확실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이병찬 사원에게서 생기가 느껴지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세아인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한 마디를 남겼다.

“회사 업무에 치여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시겠지만, 저처럼 좋아하는 취미 하나쯤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삶에 활력이 생기고, 생각지도 못한 배움을 얻을 수도 있어요.”

축구라는 ‘부캐’를 통해 삶에 긍정의 에너지를 더하고, 끊임없이 배우며 성장해나가는 이병찬 사원. 그의 일상이 말해주듯, 우리 모두에게는 스스로도 미처 몰랐던 열정과 가능성의 숨겨져 있을지 모른다.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그라운드를 달리고 있는 그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전심전력으로 뛰는 세아가족 모두의 ‘부캐’가 빛나길 기대한다.❸



세대를 초월한 국민 간식



끊을 수 없는 마성의 K-간식

떡볶이

새하얀 가래떡과 새빨간 고추장이 철판 위에서 만나면,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간식이 탄생한다. 어린 시절 시장통이나 학교 앞 분식점,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먹었던 추억의 음식. 매콤달콤한 양념에 떡과 어묵, 갖은 채소를 넣고 삶은 달걀과 튀김까지 곁들이면 금상첨화다. 세대를 초월한 국민 간식이자 한국인의 소울푸드, 떡볶이의 역사와 매력을 들여다본다.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 간식

떡볶이, 이름 그대로 '떡을 볶은 요리'다. 고추장, 간장, 설탕, 고춧가루를 기본으로 한 양념에 떡과 어묵, 대파, 양배추 등을 넣고 볶아낸다. 기본 재료 외에도 라면사리, 치즈, 만두, 달걀, 튀김 등을 취향껏 곁들일 수 있다. 특히 바삭하고 기름진 튀김을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는 맛은 그 풍미를 한층 돋운다.

떡볶이의 맛을 결정짓는 데 있어 재료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소스다. 고추장과 물의 비율, 소스의 묽기에 따라 국물 떡볶이와 볶음 떡볶이로 나뉘는데, 단지 물의 양만으로도 전혀 다른 맛과 식감을 만들어낸다.

떡볶이의 기원은 생각보다 오래됐다. <시의전서(是議全書)>, <음식디미방(飲食知味方)> 등 조선시대 문헌에도 떡볶이에 대한 기록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 시기의 떡볶이는 고추장이 아닌 간장 소스로 만든 '궁중 떡볶이'였다. 쇠고기, 표고버섯, 당근, 양파 등을 볶아 떡을 넣어 만든 궁중 떡볶이는 지금도 고급 한정식집이나 잔칫상에서 종종 만날 수 있다.

현대적인 떡볶이는 1950년대 서울 신당동에서 마복림 할머니가 고추장 소스에 떡을 볶아 팔면서 본격적으로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1970~80년대 분식 문화가 확산되면서, 국민 간식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100원, 200원만 있으면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맛볼 수 있었다. 떡볶이 한 접시를 두고 친구들과 둘러앉아 나눠먹던 풍경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공유하는 추억이 됐다.

특히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맛보던 떡볶이의 추억에는 철판이 빠질 수 없다. 철판에 떡과 어묵, 채소를 수북이 올려 볶아내던 '철판 떡볶이'는 분식점 스타일과는 또 다른 맛과 재미를 선사한다. 철판은 열을 빠르게 흡수하고 고르게 전달하는 특성이 있어 재료를 균일하게 익힐 수 있으며, 고온을 오래 유지해 강한 화력으로 빠르게 조리할 수 있다. 덕분에 떡의 겉면은 쫀득하고 속은 촉촉하게 익어, 양념과 어우러진 어묵, 채소와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게다가 철판 바닥에 살짝 눌어붙은 양념과 재료는 고소한 풍미를 더해주며, 그 부분을 긁어먹는 재미 또한 떡볶이의 숨은 매력이다. 종이컵에 담겨 나오는 어묵 국물을 말없이 건네는 포장마차의 인심이었다.

트렌드의 아이콘

떡볶이의 인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2000년대 들어 대형 프랜차이즈 떡볶이 전문점이 등장하면서 다양한 소스와 재료가 등장했다. 짜장, 카레, 까르보나라를 시작으로 로제, 마라, 허니버터, 트러플 오일까지 다양한 소스와 조합의 신종 떡볶이가 끊임없이 탄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떡볶이 밀키트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인기를 끌고 있다. 캠핑이나 홈파티용 간편식으로도 주목받으며, 맛과 조리 편의성은 물론 '캠핑 감성'까지 만족시키는 메뉴로 자리 잡았다.

K-푸드 대표 아이콘으로서의 존재감도 빼놓을 수 없다. 한국 드라마와 예능,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떡볶이가 알려지면서 해외에서도 인기가 높다. 미국, 일본, 동남아, 유럽 등에 떡볶이 전문점이 생겨나고 있으며, 떡볶이 밀키트는 글로벌 온라인 마켓에서 활발히 판매되며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어묵 대신 해산물이나 치즈를 더하는 등 현지 입맛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되며 세계인이 즐기는 K-푸드 간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최근 다시 철판 떡볶이가 주목받고 있다는 것이다. 레트로 열풍과 함께 옛 분식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떡볶이 전문점들이 생겨나며, 철판 떡볶이가 힙한 메뉴로 떠오르고 있다. 넓은 철판 위에 재료와 소스를 볶아 먹는 방식은 '레트로 감성'과 '먹방 포인트'를 동시에 만족시키며 MZ세대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음식, 그 이상

떡볶이는 단순한 분식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다. 세대를 잇는 공감의 음식이자, 시대에 맞춰 끊임없이 변신을 거듭해온 국민 간식이다. 매콤달콤한 소스와 쫄깃한 떡의 조화는 언제나 옳고, 철판 위에서 자글자글 끓어오르는 소리와 냄새는 오감을 자극한다.

그 시절의 포장마차부터 지금의 퓨전 메뉴까지, 떡볶이는 어떤 재료와도 조화를 이루는 유연함 덕분에 앞으로도 국민 간식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갈 것이다. 지친 일상을 달래는 달달하고 매콤한 위로 한 입, 떡볶이는 우리에게 음식 이상의 의미일지도 모른다. ◉



TTEOKBDKKI



고춧가루 양념 떡볶이 레시피

[재료]

떡볶이떡 200g, 어묵 100g
양파 1/2개, 대파 1/2대, 물 1.5컵
(선택) 삶은 달걀

[장保姆]

고춧가루 2큰술,
간장 1.5큰술, 설탕 1큰술,
다진 마늘 1작은술, 후추 약간
(선택) 액젓 0.5작은술 → 감칠맛 + 풍미 업
(선택) 참기름 약간 → 마무리업

[만드는 법]

① 떡 준비
떡은 찬물에 10~20분 불려주세요. (특히 썰어먹일 경우)

② 재료 손질
어묵, 양파, 대파를 먹기 좋게 썰어요.

③ 양념 국물 만들기

냄비에 물 1.5컵을 끓고 고춧가루, 간장, 설탕, 마늘을 넣은 뒤 잘 풀어줍니다.

④ 끓이기

양념 국물을 끓이기 시작하면 떡, 어묵, 양파를 넣고 8~10분 정도 더 끓입니다.
→ 중간에 계속 저어 주세요. 떡이 높아붙지 않도록!

⑤ 마무리

대파와 참기름을 약간 넣고, 기호에 따라 삶은 달걀을 추가해 마무리합니다.

고품질 강관으로 중국 시장에서 '스마트 성장' 이어가는 SeAH CTC

1800여 년의 유구한 역사와 천혜의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중국 저장성 리수이시. 이곳은 푸른 산과 맑은 강, 고즈넉한 옛 마을이 어우러져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듯한 풍경을 자아낸다. 최근 리수이시는 전략적 산업 육성과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저장성 내 주목받는 산업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청정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헬스케어 산업과 반도체 산업, 정밀 제조 및 스마트 장비 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 이처럼 자연과 사람, 전통과 현대의 조화 속에 성장하고 있는 리수이시는 SeAH CTC가 자리한 도시이기도 하다.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이어가며 리수이시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SeAH CTC 소식을 담아본다.



체계적 조직 구성과 첨단 설비로 안정적 운영

"중국 반도체 시장은 앞으로도 지속 성장할 분야입니다. SeAH CTC는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무기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과 현지화 전략을 앞세워 중국 반도체용 BA(Bright Annealing) 직관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한 SeAH CTC. 전남철 범인장은 SeAH CTC가 기술과 품질로 시장을 선도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고 전한다. 그는 국내에서 세아홀딩스, 세아베스틸, 세아창원특수강을 거치며 전략기획과 투자 업무를 수행한 후, 2020년 10월 중국으로 파견돼 SeAH CTC의 전반적인 경영과 현장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현재 SeAH CTC에는 1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영업, 생산, 관리 3개 부문으로 조직을 나눠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영업 부문은 내수 판매, 수출, 신규 고객 개발로 세분화 돼 적극적인 시장 개척과 고객 대응을 담당하고 있으며, 생산

부문은 생산관리팀, 품질팀, 생산팀, 서비스팀으로 구성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정 운영과 품질 관리를 실현하고 있다. 관리 부문은 법인 운영 전반을 지원하며 안정적인 인사 및 재무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총 20,000m² 부지에 5개 동의 생산공장과 1개 동의 사무동을 갖춘 SeAH CTC는 2022년 공장 가동 첫 해부터 중국 반도체용 BA 직관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며 기술력과 품질을 입증했다. 최근 2차 투자로 필거 장비 2대를 추가 설치해 생산능력을 기존 대비 2배 확대했다. 또한, 최근 액체 수소 스테이션 건설을 완료해 열처리 공정에 사용하는 수소 가스를 액체화 했다. 이 설비는 수소 품질을 기준 99.999%에서 99.9999%로 향상시키는 동시에, 운송 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 전력 비용을 절감하고 있으며, 노후 지붕 교체 및 우수관 설치 등 안정적인 조업 환경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력으로 중국 내수 시장 주도

SeAH CTC의 대표 제품인 반도체용 BA 직관과 Coil Tube는 내면 조도 0.15μm 수준으로, 고객 요구를 상회하는 탁월한 품질을 자랑한다. 이는 중국 반도체 업계가 요구하는 0.4μm 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로, 고객사들의 높은 만족과 신뢰를 이끌어내고 있다.

중국 반도체 시장은 2022년 정점을 찍은 이후 다소 안정세에 접어들었으나, 중국 정부의 반도체 자급률 향상 정책과 시장 확대 기조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매우 밝은 전망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 반도체 소비량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나 자급률은 15% 수준에 불과해, SeAH CTC 제품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은 SeAH CTC를 통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반도체 향 BA 제품을 자국 내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국 내 고객사도 비용 절감과 안정적인 납기 확보, 견고한 벨류체 인 구축을 통해 사업 안정화를 도모하게 됐습니다. 소통과 애로사항 해결이 신속한 부분도 고객사가 당사에게 느끼는 강점입니다.”

고객사와의 신속한 소통 및 현장 대응력을 강화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 SeAH CTC는 물류비 절감과 납기 안정화에도 성공하며, 반도체 향 BA 시장에서 중국 내 접유율 1위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현재는

석유화학, 수소에너지, 조선 산업 등 비반도체 분야에서도 수입 대체 1순위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으며, 고급 재질 및 다양한 규격 개발을 통해 제품 경쟁력 또한 지속 강화하고 있다. 한편, SeAH CTC는 2025년 5월 기준 약 190억 원의 역대 최대 월 매출을 달성했다. 이는 비제조 부문인 트레이딩 매출 확대에 힘입은 성과로, 제품 생산뿐 아니라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함으로써 실적 개선을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다.

치열한 경쟁 속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반도체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지만, 비반도체 시장에서는 다양한 주요 엔거 고객사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SeAH CTC에게 주어져 있다.

“공장에서는 품질 안정화를 고도화하고, 원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해야 하는 과제에直면해 있습니다. 영업 부문 역시 기존 고객사로부터 추가 물량을 확보하고, 고객 지갑 점유율 (SOW)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비반도체 고객사 개발과 중국 내수 시장 및 해외 시장 개척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SeAH CTC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전 임직원의 마음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전심전력(全心全力)’의 자세라고 말하는 전남철 법인장이다.



태양광 발전 설비 및 신규 공장 지붕



액체 수소 스테이션

SeAH CTC는 단기적으로 2차 투자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안정적인 가동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가격 경쟁이 매우 치열한 중국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임직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경영진의 의지가 강하다. 이를 위해 성과 창출과 공정한 보상이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구축하는데 힘쓰고 있다. 높은 품질의 제품과 현지 맞춤형 전략을 바탕으로 중국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SeAH CTC. 앞으로도 ‘전심전력(全心全力)’의 자세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이어가며 세아의 미래를 힘차게 견인하기 기대한다. ☺



워크샵



전남철 법인장이 전하는 중국은 지금

최근 중국에서는 ‘궈차오(国潮, Guochao)’ 문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궈차오’는 ‘중국풍 유행’을 의미하는데, 전통적인 중국 요소에 현대적인 디자인을 접목한 제품이나 브랜드를 일컬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중국 고유의 문화와 정체성을 자부심 있게 소비하는 트렌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전통 문양을 활용한 회장품, 의류, 패션 굿즈 등이 인기를 얻고 있으며, 과거 해외 브랜드가 선호되던 분위기에서 벗어나, 중국 브랜드의 독창성과 품질을 중시하는 소비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녹색 소비’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포장재 사용, 탄소 배출 저감 활동, ESG 실천에 관심을 갖는 소비가 늘어나면서, 기업들 역시 이에 맞춰 제품 개발과 마케팅 전략을 조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중국 소비자들의 가치관 변화와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문화 트렌드와 소비자 인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브랜드 전략과 제품, 마케팅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현지 고객과의 깊이 있는 소통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靑靑한 산과 호수의 초여름

춘천 대룡산·의암호

자연은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로
다가온다. 익숙한 풍경도 조금만 각도를
달리하면 낯설고도 신선한 감동을 안겨준다.
그런 자연의 특별한 표정을 만나고 싶어,
여름빛이 충만한 춘천으로 떠났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춘천의 산과 호수,
그 생기 넘치는 풍경을 마주하기 위해.



Chuncheon



페러글라이딩, 자연 속으로 뛰어들다

춘천을 둘러싼 산들 가운데 가장 높은 해발 899m의 대룡산은 ‘춘천의 지붕’이라 불린다. 소양강 곁에 자리한 이 산은 매년 새해 첫날 시산제를 지내는 진산(鎮山)으로, 춘천 사람들에게는 ‘어머니 산’이라 불릴 만큼 친숙하고 특별한 존재다. 산행길은 넓고 완만한 숲길로 이어진다. 햇살이 머문 잣나무 군락에는 벤치와 평상, 탁자가 놓여 있어 잠시 숨을 고르며 피톤치드를 충전할 수 있다.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에는 초여름 특유의 푸르름이 실려 있다. 그렇게 자연의 기운을 느끼며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어느새 활공장에 닿는다.

‘활공장’은 글라이딩 훈련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춘천 대룡산은 영월 봉래산, 평창 장암산과 더불어 강원도를 대표하는 페러글라이딩 명소로 꼽힌다. 이곳에서는 동호회 회원만 비행이 가능하며, 비행 전 기초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동호회에서는 정기적으로 비행대회를 열기도 한다.

대룡산 활공장은 탁 트인 전망을 자랑한다. 북쪽으로는 명봉과 구봉산의 능선이 이어지고, 그 아래 소양호가 잔잔한 물결 위로 윤슬을 띠고 있다. 동쪽에는 가리산의 암봉 세 개가 우뚝 솟고, 남쪽에는 대룡산과 금병산, 서쪽에는 삼악산의 품이 아스라하다. 이곳은 운무 가득한 새벽과 불게 물든 일몰이 특히 아름다워 사진가들이 즐겨 찾는 명소다.

페러글라이딩 체험은 철저한 기상 확인, 착륙장 상태 점검, 장비 확인을 마친 뒤 진행된다. 헬멧과 장갑, 하니스를 착용하면 비행 준비 완료. 가볍게 달려 파일럿의 지시에 따라 두 발을 땅에서 떼는 순간, 중력에서 벗어나는 오묘한 감각과 함께 공중으로 날아오른다. 등 뒤 글라이더가 바람을 가득 머금는 느낌이 전해지자, 두려움은 어느새 잊어들고 눈 앞 풍경이 비로소 또렷이 들어온다. 초록빛이 짙어가는 산과 들, 호수가 시야 가득 펼쳐진다. 짜릿함과 평온함이 교차하는 하늘 위에서, 활공장에서 바라보던 것과는 또 다른 춘천의 자연을 만끽한다. 자연의 일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나’ 자신을 느끼는 순간이다.



짜릿함과 평온함이 교차하는 하늘 위에서, 또 다른 춘천의 자연을 만끽한다. 자연의 일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나’ 자신을 느끼는 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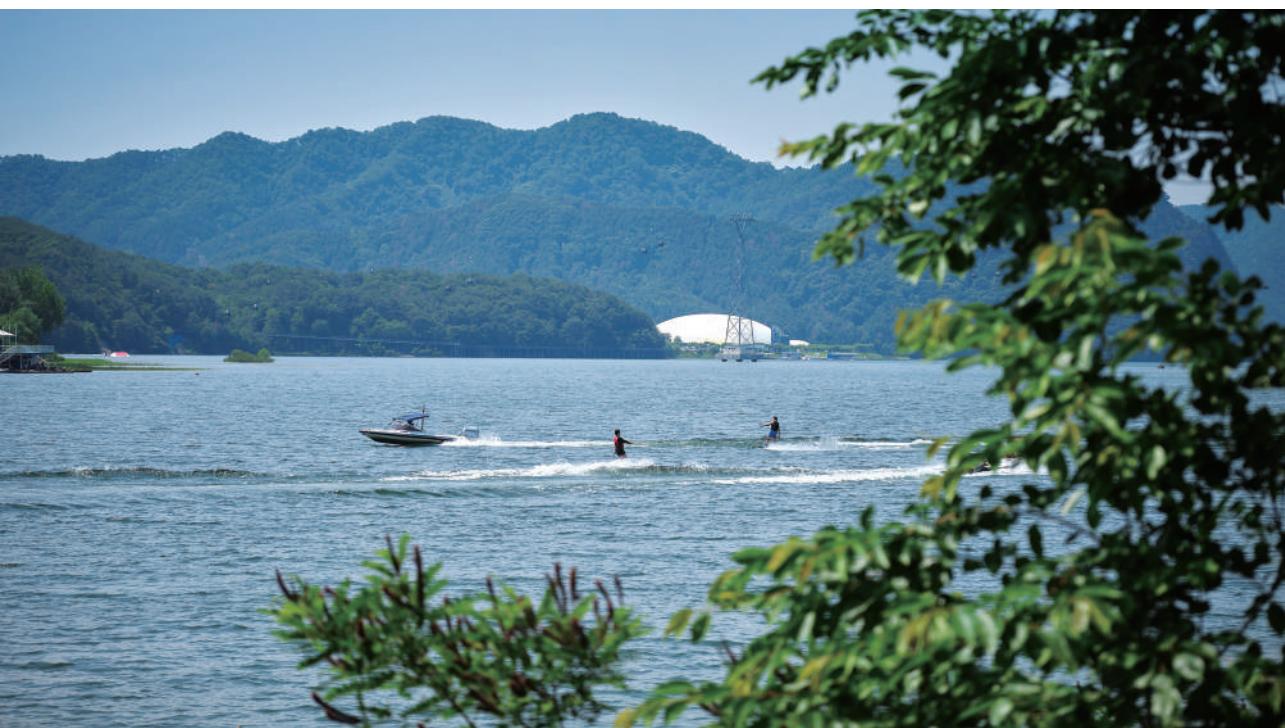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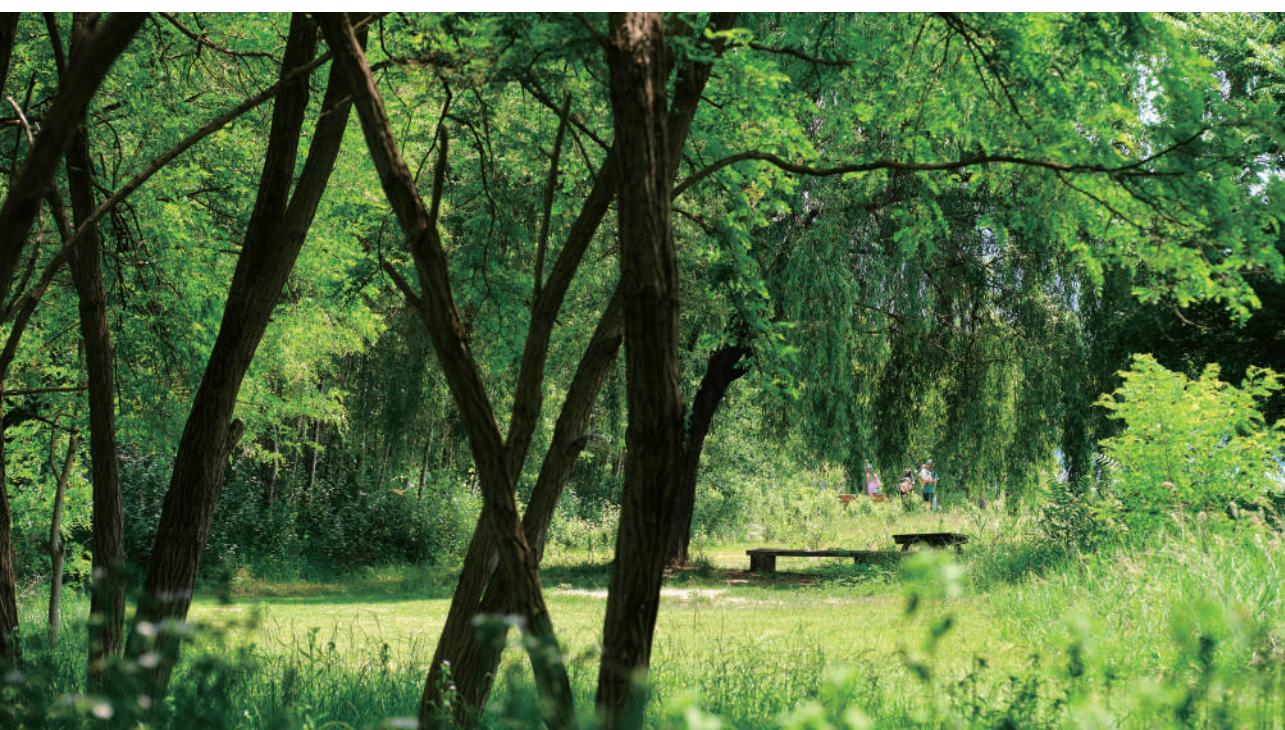
배 위에서 즐기는 호수의 낭만

‘산악 도시’였던 춘천이 ‘호반의 도시’로 불리게 된 것은 의암댐 건설로 의암호가 생기면서부터다. 춘천의 서쪽에 자리한 의암호는 북쪽의 춘천호, 동북쪽의 소양호와 더불어 춘천을 낭만적인 도시로 만들었다.

의암호 나들길도 전국적으로 이름난 여행 코스지만, 풍경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카누를 타기로 했다. 물결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가며 바라보는 풍경은 분명 육지에서와는 또 다른 표정일 테니까.

춘천 물레길은 카누 전문 레저시설로, 의암호에서 1~2시간 내외의 다양한 코스를 운영하고 있다. ‘자연생태공원길’, ‘물풀숲길’, ‘철새동지길’, ‘중도종주길’, ‘스카이워크길’ 등 총 다섯 가지 코스 가운데 중도유원지와 민물고기 자연양식장, 물풀 생태계길을 지나는 ‘물풀숲길’을 선택했다.

송암레포츠타운의 물레길 사무국에서 구명조끼를 챙기고, 나무 패들을 든 채 선착장으로 향했다. 조용히 떠 있는 카누들.



6월의 싱그러움이
온몸을 감싸고,
나지막한 물소리와
바람 소리,
햇살의 반짝임이
더없이 호사로운
순간을 선물한다.

푹신한 좌석에 앉아 천천히 패들을 밀자, 잔잔한 물살을 가르며 배가 나이갔다. 안전요원이 탄 모터보트가 멀찍이 뒤따르고, 노를 저어가며 호수 위를 미끄러지듯 이동하는 기분은 그야말로 유영 같았다.

물가 풀숲에서는 새하얀 백로가 날갯짓을 하고, 수면 위로 튀어 오르는 물고기들이 투명한 호수를 수놓는다. 초록빛 숲과 하늘, 물결 이는 호수는 마치 수채화처럼 은은한 풍경을 그려낸다. 6월의 싱그러움이 온몸을 감싸고, 나지막한 물소리와 바람 소리, 햇살의 반짝임이 더없이 호사로운 순간을 선물한다.

마음을 정화하는 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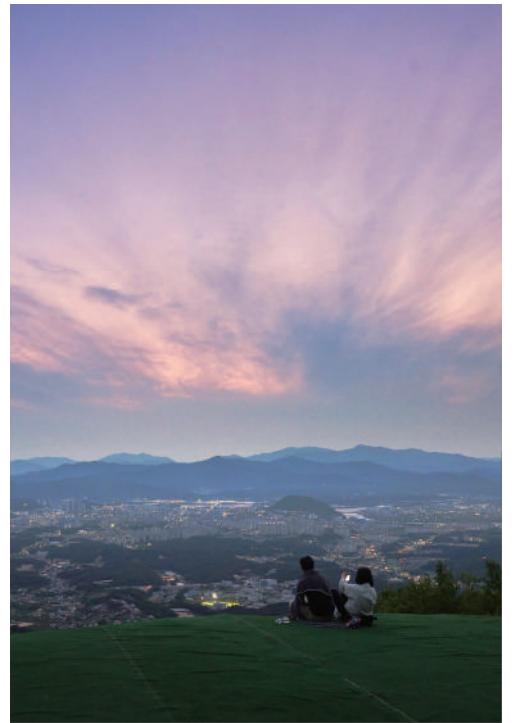
의암호 한가운데에는 상중도, 하중도, 중도, 위도 네 개의 섬이 있다. 그중 하중도에는 자연 그대로의 수변생태공원이 조성돼 있다. 춘천대교를 건너 차로도 쉽게 들어설 수 있어, 도심에서 잠시 벗어나기 좋은 곳이다.

섬을 따라 걷는 둘레길, 숲속 산책로, 자전거길, 수변 데크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곳곳에 놓인 쉼터와 의자, 테이블에 앉아 호수 풍경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차분해진다. 공원 끝자락에는 산과 호수를 한 폭의 그림처럼 담아낸 액자 포토존도 있다.

이 섬은 ‘새들의 낙원’이라 불린다.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 숲 사이사이로 울려 퍼지는 새소리에 발걸음이 절로 멈춘다. 둘레길을 따라 늘어선 버드나무들은 바람에 가지를 흔들며 햇살을 흘뿌리고, 잡자리와 이를 모를 곤충들이 나뭇가지 사이를 오간다. 이따금 큰 잉어가 지나가며 내는 물소리도 선명히 들릴 만큼 사방이 고요하고 평온하다.

포토존 앞에는 ‘외톨이 나무’라 불리는 벚나무 한 그루가 고요히 서 있다. 그 나무 곁 벤치에 앉아 바라본 의암호의 한가로운 풍경 속에서, 복잡했던 마음의 결들이 하나둘 풀어지는 기분을 느낀다.

밤이 내려앉은 호수는 낮과 또 다른 표정을 보여준다. 춘천 대교의 조명과 가로등 불빛이 물 위로 흐드러지며 은은하고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인공의 빛조차도 자연 곁에서는 더없이 아름답게 빛난다. 그런 풍경 속에서, 하루의 끝이 조용히 찾아오고 있었다. ◎



SeAH NEWS

세아제강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 대상 기업 현장 소개 진행



세아제강 군산공장은 지난 4월,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의 방문을 맞아 기업 소개를 위한 인터뷰와 현장 안내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산업단지 내 우수 입주기업을 조명하고 대외 홍보를 강화하고자 기획된 일정으로, 박준섭 공장장은 인터뷰를 통해 군산공장의 생산 역량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어 도금 설비를 중심으로 한 현장 투어가 진행됐으며, 마지막으로 임직원과 함께 단체 사진을 찰영하여 일정을 마무리했다.

세아베스틸

세아이운문화재단-세아베스틸,
군산시와 함께 오페라〈람메르무어의 루치아〉 개최



세아베스틸이 지원하고 세아이운문화재단과 군산시가 공동 주최한 '2025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음악회'가 5월 16일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공연은 군산 시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니제티의 대표작 〈람메르무어의 루치아〉가 무대에 올랐으며, 섬세한 연출과 깊이 있는 음악으로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쾌적한 현장을 위한 '2025년형 기능성 티셔츠' 보급



세아베스틸이 임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형 기능성 티셔츠를 선보였다. 이번 티셔츠는 ▲냉감 프린트와 데오드란트 기능성 소재를 적용해 더운 환경에서도 쾌적함을 유지하고 ▲CI 컬러 리밸과 세탁번호 기입 공간을 더해 실용성과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했다. ▲목 뒤 자극을 줄이기 위해 봉제 리밸 대신 나염 리밸을 적용했으며, ▲카라에는 재귀 반사 장식을 더해 어두운 환경에서도 시인성을 높였다.

세아창원특수강

친환경 형석대체제 공급 MOU 체결



세아창원특수강은 폐수처리 전문기업 ㈜삼정개발, 지원화 전문기업 ㈜세중이에스와 함께 특수강 제조에 필수적인 형석대체제를 공급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기존 해외 수입에 의존해온 형석을 첨단산업의 폐액을 재활용해 생산하게 되는 협약을 통해 국내 산업의 자원순환과 원가절감, 환경부하 저감이라는 1석 3조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아특수강

세아특수강 포항공장, 사랑의 헌혈 캠페인 실시



세아특수강 포항공장은 5월 28일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실시해 생명 나눔에 앞장섰다. 매년 2회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혈액 수급난을 해결하고 헌혈 참여 문화 조성에 힘을 보태고자 마련됐다.

사전 신청을 통해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됐으며, 헌혈이 어려운 일부 직원들은 헌혈증서를 기증해 혈액 수급에 힘을 보탰다. 한편, 세아특수강 포항공장은 헌혈, 연탄나눔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ESG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세아씨엠

세아씨엠, 환경의 날 맞아 플로깅·벽화 봉사 진행



세아씨엠 봉사단은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군산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군산 은파유원지에서 플로깅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어깨띠 착용, 시민 메시지 전달, 인증샷 공유 등 참여형 캠페인을 병행하며 환경 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이어 6월 19일에는 군산 미성동 일대에서 벽화 그리기 봉사를 실시해, 노후된 담벼락을 밝고 생동감 있는 색으로 꾸며 지역 미관을 개선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상생을 실천하고 있다.

세아항공방산소재

'2025 경남 세계인의 날' 행사 봉사활동 참여



세아항공방산소재는 지난 5월 18일, 창원 만남의 광장에서 열린 '2025 경남 세계인의 날' 행사에 임직원 봉사단을 조직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세

계인의 날'은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존의 가치를 나누기 위한 국가 기념일로, 이번 경남 지역 행사에는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일반 시민 등 3천여 명이 참여했으며, 문화 체험과 전통 공연, 체육·놀이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세아항공방산소재는 행사 현장에서 방문객 안내, 행사장 정리 및 환경 정비, 다문화가정 어린이 대상 체험 부스 운영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사우동정

세아제강지주

입사

류동진 준법경영팀

세아제강

입사

장우영 포항공장 업무지원팀

최세웅 포항공장 설비보전팀

김세준 포항공장 제품개발팀

김종원 포항공장 선행연구팀

박동현 순천공장 설비팀

박종성 순천공장 설비팀

이동희 부산STS영업팀

윤성동 군산공장 안전환경팀

결혼

김형모 포항공장 출하반

조영근 포항공장 중경생산팀

김소정 순천공장 품질경영팀

한종원 포항공장 제품개발팀

출산

박아람 STS내수팀

김광진 호남영업소

이종휘 구매2팀

조의

박민석 포항공장 중경생산팀(빙모)

이원효 포항공장 중경생산팀(부친)

김종민 포항공장 품질경영팀(부부)

이상민 DX팀(빙모)

세아베스틸

결혼

최대현 설비기획팀

조석민 영남실수요영업팀

이동훈 대형압연팀

양선진 동반성장팀

이노현 소형정정팀

전반석 단조설비팀

출산

이정원 구매3팀

조의

송병이 소형압연팀(부친)

송민수 원자력생산팀(모친)

최인기 설비기획팀(모친)

최상고 2제강팀(모친)

허창길 소형압연팀(모친)

방진환 연주팀(부친)

임기용 대형압연팀(모친)

오형진 소형정정팀(빙모)

최강삼 대형압연팀(빙모)

세아씨엠

결혼

박지훈 건재영업팀

조의

강정호 1CC 팀(모친)

강정호 1CC 팀(부친)

강연호 3CC 팀(모친)

정민수 3CC 팀(빙모)

세아항공방산소재

결혼

박경호 물류반

출산

최민기 생산관리팀

조의

안광수 압출반(빙부)

세아 L&S

입사

홍승희 포항물류팀

이태호 판매기획팀

결혼

강민수 서울판재영업팀

출산

백지연 부산강관영업팀

장유성 서울강관영업팀

세아원드

조의

권순규 기술TFT팀(모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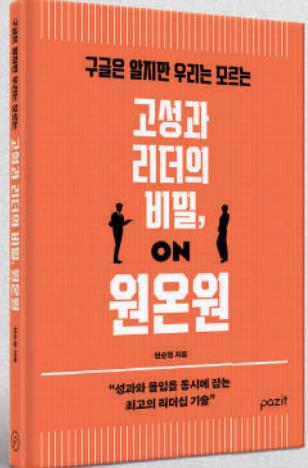
SeAH

지난 호 Best 텍스트 힙 Reader 책 리뷰

세아제강 양홍모 이사

고성과 리더의 비밀, 원온원

저자: 현순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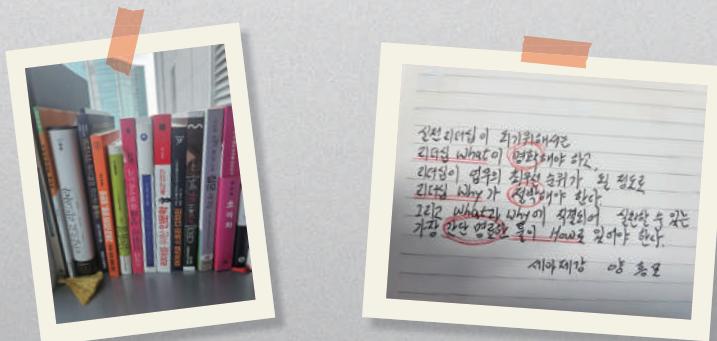


[추천 메시지]

도서에서 인용한 2022년 갤럽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물입도 세계 평균은 21%이며 미국은 이보다 높은 35%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12%로, 미국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한국 직장인들의 물입도가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복리후생이나 근무환경 문제인가? 동기부여나 권한 위임이 충분하지 않아서일까? 혹은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지 못해서는 아닐까?

이 도서에서는 직장인 물입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직책자의 리더십'을 꼽는다. 리더십,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조직의 핵심이다. 리더십의 정의나 접근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리더십의 출발점은 조직원과의 원온원 미팅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그 개념과 실행방법에 대해, 이 책을 통해 생각해보기를 권한다.



'책 읽는 세아' 캠페인
이번 호 EVENT 참여 방법

◆ ◆ ◆ "읽는 순간 '힙'해진다! 독서하는 세아인을 보여주세요!"



- ① 자신이 읽고 있는 책이나 책장, 독서 환경을 촬영한다.
- ② 감명받은 책 속 한 구절을 필사한 후 사진으로 남긴다.
- ③ 책 제목, 저자, 추천 이유를 100자 내외(3행 내외)로 작성한다.
- ④ 위의 내용을 7월 31일까지 이메일(sujin.hwang@seah.co.kr)로 전송한다.
- ⑤ 'Best 텍스트 힙 Reader'로 선정되고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받는다.

〈세아가족〉 사보 기자

세아제강지주 기업문화팀 이해연
세아제강 인사팀 안미경
세아베스틸지주 지원팀 김명제
세아베스틸 경영기획팀 이정화
세아창원특수강 경영기획팀 박수빈
세아특수강 인사팀 변훈규
세아씨엠 업무지원팀 고은비
세아 M&S 인사팀 김윤정
세아항공방산소재 인사총무팀 한구일
세아 L&S 인사팀 김예슬
세아네트웍스 조직문화팀 박수정
브이엔티지 EX실 강근희

SěAH



친환경 종이와 콩기름 인쇄로 제작되어 지구 환경 보호에 앞장십니다.